

김도영 “젊은 패기로 우승 영광 이어갈 것”



KIA타이거즈 나지완



KIA타이거즈 양현종



KIA타이거즈 김도영

2024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KIA 이범호 “삼성 예상 잘 준비했다” 삼성 박진만 “플레이오프 기운으로” 공격 극대화 희망... 5차전서 끝날 것

양 팀 모두 한국시리즈 다섯 경기 안에 우승기를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팀은 웃고 한 팀은 울어야 하는 것이 승부인 만큼 양보란 있을 수 없는 일.

본격적인 맞대결에 앞서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는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오후 동구 라마다플라자 중장호텔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 KIA 이범호 감독과 투수 양현종, 내야수 김도영, 삼성 박진만 감독과 포수 강민호, 내야수 김영웅이 참석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페넌트레이스를 멋있게 잘 치렀다. 삼성라이온즈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선수들과 열심히 잘 준비했다”며 “전통의 라이벌끼리 31년 만에 제일 큰 무대인 한국시리즈에서 만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명승부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박진만 삼성 감독은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결과로 한국시리즈까지 올라왔다”며 “정규시즌 1위 팀인 KIA는 전력이 탄탄한 팀이지만 빈틈이 있기 때문에 잘 파고 들겠다. 플레이오프의 충만한 기운으로 KIA를 잡아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맞섰다.

양 팀 사령탑만큼이나 주요 선수들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KIA는 양현종과 김도영이, 삼성은 강민호와 김영웅이 팀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양현종은 “정규시즌을 1위로 마무리하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로 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시리즈 1차전부터 100% 컨디션을 보여드리겠다. 2009년과 2017년의 좋은 기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도영 역시 “정규시즌을 부상 없이 열심히 달려왔다. 젊은 패기로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영광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겠다”며 “제 첫 우승이라는 기록은 반드시 삼성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몫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규빈 기자



반면 강민호는 “한국시리즈가 꿈이었다. 이 자리까지 오는 데 21년이 걸렸다”며 “좋은 팀원들과 하나로 잘 뭉쳐서 한국시리즈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고, 후배들과 함께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후회 없이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웅은 “플레이오프 첫 경기부터 긴장이 많이 됐지만 이미 다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시리즈는 자신 있다”며 “포스트시즌에는 팬분들의 함성 소리가 확실히 더 크기 때문에 집중도 잘되고 더 재밌다. 공도 잘 맞는 것 같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양 팀 사령탑의 공통된 희망은 ‘불타는 방망이’다. 스포츠는 결국 득점을 해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만큼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선수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감독은 “야구는 방망이다. 한국시리즈가 재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팀이 더 공격력이 좋냐에 따라서 우승이 판가름 날 것이다. 앞선 포스트시즌을 보면서 한 점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봤고, 1-0이 얼마나 무서운 스코어인지 충분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도 “불타는 장타력으로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다”며 “0-1로 쳐보기도 했고 1-0으로 이겨도 봤는데 숨이 막혔다. 좋은 화력이 나타나면 활기찬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타력 1위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끝으로는 이번 한국시리즈가 몇 차전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손가락으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감독이 한 손을 움직이자 박 감독이 왜 두 손이 아니라며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전에 대한 희망은 양 팀 사령탑과 선수단이 모두 동일했다. 이 감독과 양현종, 박 감독과 강민호, 김영웅이 지체 없이 다섯 손가락을 펼쳐 보였고 김도영이 홀로 네 손가락을 폈다가 황급히 한 손가락을 마저 들어보이며 5차전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한규빈 기자

‘정해영 아버지’의 응원

▶ 그는 1991년과 1993년, 1996년 해태의 우승 멤버로 활약했다. 특히 31년 전 삼성과 맞붙은 마지막 한국시리즈에서는 선동열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해태는 먼저 승리를 거둔 후 2연패(무승부 포함)에 빠지며 1승 1무 2패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으나 5차전부터 3연승을 거두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정 감독은 “1993년에는 5차전을 치르면서 자신감이 붙었다. 상대 안방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이종범이나 홍현우가 계속 흔들었고, 투수들도 세 경기에서 5점 밖에 주지 않았다”며 “삼성이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KIA 타자들은 훨씬 더 강하다. KIA 투수들이 힘들겠지만 삼성 투수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의 제자들이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활약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준영은 스카우트 팀장 시절 지명했고 이범호 감독과 김규성, 김선빈, 양현종, 이창진, 전상현, 최원준, 최형우, 한승택 등이 퓨처스 감독과 수석 코치 시절 함께 했다.

정 감독은 “2017년에 퓨처스 감독을 하고 2018년에 수석 코치를 하면서 ‘부자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 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승을 하면 더욱 보장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KIA가 지난해부터 선수를 잘 꾸렸다. 올해는 이범호 감독이 정말 좋은 팀을 만들었고, 우직

하고 지혜롭게 야구를 했다”고 평가했다.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바라보는 타이거즈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감독의 차남인 정해영은 KBO 리그 사상 최초로 같은 팀에서 부자가 1차 지명을 받은 뒤 현재는 KIA의 뒷문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정규시즌 우승이 확정되고 해영이가 한국시리즈 때 긴장이 많이 되냐고 묻길래 여러 솔직한 얘기를 해주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고 있을 것이고 충분히 잘해낼 것이라고 했다”며 “자식이 잘 되면 당연히 부모로서는 행복한 일이다. 요즘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의 인생이 모두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라며 미소 지었다.

팬들은 우승 포수로서 마운드를 향해 달려갔던 정 감독의 모습이 정해영에게서 재현되길 바라고 있다. 정해영이 ‘V12’를 확정 짓는 아웃 카운트를 잡아낸 뒤 포수와 진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을 그리는 것.

정 감독은 “저 역시 그런 상상을 해봤다. 그 그림이 나와야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수가 마무리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장면으로 우승이 확정될 수도 있지만 아들을 믿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 문화의 섬 진도 미래비전 선포

code 코드 아리랑 만개 萬開

아리랑 전통문화예술제

아리랑 주제의 시공간 융복합 공연

아리랑의 과거 ~ 현재 ~ 미래

2024.10.25. - 27.

2024.10.25. (금) 오후 5시부터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야외특설무대

1부 원형·민속의 3개 시도 아리랑

2부 모던·퓨전·크로스오버 아리랑

3부 포스트모던·다원예술 아리랑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Jindo 진도군 협력 [사] 한국예총 진도지회

주관 全南日報 진도문화도시센터